



교합평면 부조화와 심한 마모가 있는 환자에서의 완전구강 회복 증례

서재민*, 박찬운, 안승근, 윤태호 |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전악에 걸쳐 광범위한 마모와 부분적인 치아 상실로 수직고경의 감소와 교합평면이 붕괴된 경우, TMJ나 저작근 등의 병리적인 문제, 심미적인 문제, 저작 기능의 문제, 치아의 민감도 및 동요도 증가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난다.

이 때, 교합평면을 보철적으로 새로이 설정 해주려 하는 경우, 치과의사는 현재의 수직고경 변화 유무에 대한 신중한 진단과 판정을 해야 한다. 보통 고경을 증가시켜 수복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개하악 장애를 완화하거나, 또는 심한 마모로 인한 상실된 교합 고경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안면의 주름을 없애기 위함 등이 있다. 그러나 수직고경을 증대시킨 상태에서 수복하는 것은 이갈이나, 근피로, 치아, 근육 및 관절의 동통, 두통, 치아의 함입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시수복물이나 splint 등을 이용한 과도기적인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인 보철 수복의 상태에 환자가 적응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증례의 환자는 55세 남성 환자로써 마모로 인해 짧아진 전치부 치아에 대한 심미적 불만족 및 하악 구치부 상실로 인한 저작시 불편감과, 3-4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TMJ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비기능적 습관으로 수면시 이갈이가 있으며, 전신적인 병력은 없었다. 구강검사, 방사선 검사, 모형 검사와 수직 고경 평가를 통해 full mouth rehabilitation 및 수직고경 증가를 결정하고, 이에 맞게 진단 wax-up을

시행하였다. 수직고경은 전치부 임상적인 치관 길이에 대한 논문을 참조하여 마모량 및 심미적 회복에 맞추어 정하였다. 일시적 거상법을 이용한, 진단 wax-up을 토대로 임시 수복물을 제작 하였다. 임시수복물은 Gothic arch tracer를 통해 채득한 중심위 위치에서 제작되었으며, 견치 유도를 부여하고 전치부 심미회복과 교합평면의 개선을 목표로 최대한 최종수복에 가깝게 제작 되었다. 임시수복물 장착 12주 후, 양측 TMJ의 통증의 소실을 확인하였고, 최종인상을 채득 하였으며, 이미 적응된 임시수복물의 고경 유지 및 중심위 확보 위해 전치부 임시수복물을 이용하여 교합을 채득하였다. 최종 고정성 수복물은 구강내에서 적합성을 확인하고, 교합을 채득, 다시 교합기상에서 교합조정 한 후, 환자에게 최종 장착하였다. 그 후, 하악 구치부 부분 무치악 부위 수복을 위한 Konus denture를 제작하고, 교합 조정 후, 환자에게 최종 장착하였다. 잔존 하는 환자의 이갈이 습관을 차단하기 위해 night guard를 제작해주고 주기적인 follow-up check를 약속하였다.

이상과 같이 마모 및 부분적 치아상실로 교합 평면 및 수직 고경을 상실한 환자의 증례에서 수직 고경의 회복을 동반한 보철 수복을 통해 심미성과 기능을 회복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